

‘삼국을 한눈에 바라보며 문화산책’

자연풍경 지역문화가 어우러진 ‘방천풍경구’



훈춘시 방천풍경구에서 고리형 나무잔도를 새로 건설해 잔도 끝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삼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전에 없던 새로운 시야를 선사한다.

방천풍경구는 삼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데다 우리 나라 변강의 역사, 인문, 민속, 미식 등 다양한 문화관광 요소로 인기몰이중이다.

지난 23일에 기자는 방천풍경구 통호각 바로 아래로부터 전체 길이가 2,221미터에 이르는 중—로—조 삼국 변경 나무잔도를 따라 8개의 주제구역, 2개의 오락구역, 2개의 탐방하면서 자연풍경의 아름다움과 지역문화를 체험했다. 봄을 맞아 한창 새싹이 돋기 시작한 나무들을 지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삼국의 경치가 한눈에 보이는 ‘문화산책’을 하다 보면 덩달아 기분이 상쾌해지는 일상의 힐링을 만끽할 수가 있다.

훈춘방천삼강국제관광그룹유한회

사 마케팅부 경리 류양은 기자에게 “2023년 5.1절 연휴 기간의 관광객 이동량 예측에 따르면 올해 5.1절 연휴에도 관광객 류동량이 고봉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호각 전망대에 관광객이 크게 몰릴 것에 대비해 5.1절 연휴 기간 중—로—조 3국 변경 나무잔도를 개방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나무잔도는 변경풍광, 민족문화, 인문력사 등을 특징으로 다양한 요소를 담았다. 8개 주제구역은 각각 ‘매력방천’, ‘해발원점’, ‘적고남북’, ‘전선의 무지개’, ‘분류입해’, ‘길림장백산삼림공업’, ‘동북

범·표범공원’, ‘금과회향’(金戈回响) 등이 포함되며 2개 오락구역은 공중흔들다리와 유리잔도로 이루어졌다. 맨 끝에 있는 2층 전망대 위에서 바라보면 토자비(土字碑), 423경계비가 눈앞에 있고 철도대교가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보여 삼국 접경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다.

통호각 내부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6층부터 9층까지를 훈춘의 역사와 문화를 전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천애국주의교양기지로 건설했다. 또한 풍경구내 두만강류역민속문화관은 최근 대외에 개방하여 관람

객들이 지역문화를 더 잘 료해할 수 있도록 생동한 전시 플랫폼을 마련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5.1절 연휴 기간 방천풍경구는 풍부하고도 다채로운 문화오락활동들을 기획해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테면 중—로—소년가무공연, 민족가무공연, 통소연주, 민족복식 퍼레이드, 맥만들기 전시공연 등 행사가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삼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혼상하는 동시에 조국 변경의 역사와 인문, 민속, 음식들을 골고루 즐길 수 있게 되어 기대를 모은다.

/ 김가혜 김영화 기자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5.4 청년절’의 유래와 의의

— 신기덕 —

5.4 청년절은 1919년 중국 반제국주의의 5.4 운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5.4 애국운동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철저히 반대하는 애국운동이자 중국 신민주주의혁명의 시작이기도 하다.

1939년 섬감녕변구 서북청년구국련합회에서는 5월 4일을 중국청년절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49년 12월 23일 중앙인민정부 정부원에 의해 정식으로 제정되었다.

청년절 기간에는 중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리고 청년들은 각종 사회봉사와 사회실천 활동에 참가한다.

5.4 운동은 문화와 사상의 개혁운동이었다. 운동은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문화에 대해 전면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문인문대신 백화문을 사용하는 새로운 문화운동을 제안하였다. 북경대학은 이 신문화운동의 발원지이고 책임지였다.

북양군벌의 암흑한 통치는 계속되고 중국 무산계급은 장대해졌으며 신문화운동은 사상해방을 촉진시켰고 10월 혁명은 중국인민에게 맑스주의를 전파시켜주었다. 거기에 유럽의 빠리강화회의의 외교적 실패와 함께 <빠리강화조약>의 체결은 마침내 발발한 5.4 애국운동을 폭발시켰다.

1919년 5월 4일, 북경의 젊은 학생들이 주축이 된 학생운동에서 대중, 시민, 공산인, 중화계층이 광범위하게 참가한 시위, 청원, 파업, 정부에 대한 폭력 등 다양한 형식의 애국운동이 폭발하였다. 이것은 중국인민이 제국

주의와 봉건주의를 철저히 반대하는 애국운동이었다.

5.4 정신의 핵심 내용은 ‘애국, 진보, 민주, 과학’이다. 우리는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나라의 번영과 부강을 위하여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이어나가면서英勇하게 싸워야 한다. 애국주의는 5.4 정신의 원천이고 민주와 과학은 5.4 정신의 핵심이며 용감하게 탐구하고 과감하게 창조 혁신하며 사상을 해방하고 변혁을 실행하는 것은 민주와 과학의 임무이다.

애국주의와 민주,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화민족을 진흥시키려는 데 있다. 따라서 5.4 운동을 기념하고 5.4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을 결합하여 중화민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4 청년절은 5.4 운동을 기념하는 것과 청년절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두가지는 함께 력사와 현실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원동력을 구성한다.

애국혁명운동중에 충만된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정신과 신문화운동에서 창도된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정신을 가리켜 5.4 정신이라고 한다. 이 정신의 계주봉은 세세대대로 전해질 것이다.

애국정신은 당시 민족독립을 쟁취하고 나라의 주권과 령토의 완정을 수호하며 제국주의 노역과 봉건군벌 정부의 매국행위를 반대하는 가장 강대한 정신적인 무기였다. 애국주의는 5.4 운동이 폭발한 원천이자 5.4 정신의 핵심이다.



중국축구협회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U15 조) 룡정서 개최

2024년 중국축구협회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중점도시 남자 U15조)가 지난 4월 21일 룡정해관강축구문화타운에서 개최되었다.

룡정에서 개최된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는 C조 경기이며 연변 U15 대표팀, 중경 U15 대표팀, 서안 U15 대표팀, 항주 U15 대표팀, 남경 U15 대표팀 등 5개 팀의 단순환경기로 펼쳐진다.

21일에 있는 경기에서 연변 U15 대표팀은 항주 U15 대표팀을 4대 1로 전승하였으나 25일에 있는 중경 U15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0:3으로 패했다. 연변 U15 대표팀은 27일 오전에 남경 U15 대표팀과 소조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번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는 3개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제1단계는 15개 팀이 2023 시즌 순위에 따라 1위부터 5위 팀이 A조에 편성되고 6위부터 10위까지 B조에, 11위부터 15위까지 C조에 편성되었다. 매 소조 5개 팀이 단순환경기를 통해 순위를 내오는데 A조 5위 팀이 B조 1위로 강등하고 B조 1위팀이 A조 5위로 승격, B조 5위 팀이 C조 1위로 강등하고 C조 1위 팀이 B조 5위로 승격한다. 그리고 점수 순위에 따라 A조 1위—5위 팀, B조 1위—3위 팀이 제3단계 8강전에 진출하며 B조 4위와 5위 팀, C조 1위—5위 팀이 9위—15위 순위 결정전을 치르게 된다.

제3단계 순위 결정전은 제2단계 순위 결과에 따라 A조 1위—5위 팀, B조 1위—3위 팀 8개 팀이 소조 단순환경기와 교차순위경기를 통해 1위—8위를 내오고 B조의 4위, 5위 팀과 C조 1위—5위 팀이 소조 단순환경기와 교차순위경기를 통해 9위—15위를 내오게 된다.

/ 김파기자

[전망대]

팬들이 아쉬운 ‘라면’ 먹지 말도록



대련영박과의 경기에서 연변룡정팀 리룡선수가 공을 통제하고 있다.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7라운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과 대련영박팀의 경기가 끝나자 팬들 사이에서 아쉬운 ‘라면’ 소리가 무성했다. “이보가 상하지 않았더라면...”, “로난의 슛이 좀더 강했더라면...”, “수비선에 든든한 김태연이 있었더라면...”과 같은 ‘라면’은 경기 결과에 대한 축구팬들의 아쉬움의 표현이고 연변축구에 대한 또 다른 무한한 사랑의 방식의 표출이다.

4월 28일과 5월 4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중심에서 룡정철인과 흑룡강병성을 만나는 연변팀의 경기 일정은 꽤 느슨한 편이다. 다 같은 동북의 팀들을 홈장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료녕철인은 2승 2무 3패로 8점

을 기록하며 현재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변팀과 실력이 엇비슷한 팀이라고 봐진다. 하지만 소주동오와 강서려산을 홈에서 이긴 외광서평과하료와 원정에서 1:1로 비고 대련영박과도 원정에서 맞대결로 2:3으로 패한 것을 보면 원정경기에서도 일정한 살상력을 가진 끈질긴 팀으로 이 팀을 상대로 펼치는 경기는 추호의 방심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해의 선수들을 기초로 2명의 용병과 14명의 국내 선수들을 새로 영입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룡정철인의 감독조 조장, 기술총감을 맡은 범지이다. 1990년대 상해신화에서 활약한 축

구 명장,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109차의 A매치를 뛰며 ‘범대장군’으로 불리고 ‘중국축구선생’, ‘아시아 축구선생’ 칭호를 받은 바 있는 유명 축구인이다.

반면 현재 연변팀에는 골 결정력 부족과 자기 통제구역에서 나타나고 크고 작은 실수 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앙 핵심 이보나 변선 공격수 아볼레다의 출전 여부에 이상이 걸리고 체력적으로 말리는 로장들의 위치를 미봉하여줄 선수가 부족한 등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로 연변팀에는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할 수도 있는 시점이다.

지난 경기들에서 치열하고 긴장한

가운데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범한 ‘아차실수’ 실례들은 기실 연변팀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 프로선수로서는 범하지 말아야 할 관건적인 실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반복하는 것은 절대 ‘아차실수’가 아니다. 그런 선수를 그냥 출전시켜야 하는 것도 연변팀의 안타까운 사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룡정철인이나 흑룡강병성 두 팀 다 절대적인 강팀이 아니라는 점이다. 4-4-2 진세로, 철통수비를 바탕으로 패속반격이나 전면공격을 발동하는 전법을 주로 사용하는 룡정철인을 상대로 연변팀은 중앙 통제와 대인방어에 각별히 주의를 돌려야 하며 수비선에서 경기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아차실수’를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전제하에 수비, 조직, 공격 3선에서 우리의 우세인 투지와 경기력을 발휘하여 일심협력한 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홈장불패 기록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변팀이 고리타분한 전술체계에서 한층 새로운 전술체계로 거듭나 부동한 선수에 따른 령활한 전법을 구사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갑수록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갑급리그에서 자기가 설 위치를 자기의 실력으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라고 대련영박과의 패배 부담을 강그리 털어버리고 그 과정을 거울로 팀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팬들로 하여금 아쉬운 ‘라면’을 적게 끓이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태국기자